

## 정병석의 경제멘토링



## 혁신적인 정책이 채택되지 않는 이유

반계 유형원은 관계에 진출하여 출세하는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32세(1654년)에 전라도 부안군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한다. 자기가 벼슬을 얻어 국가에 기여하는 것보다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부안에서 농사도 지으면서 사회현실과 중국·조선의 문헌공부에 몰두한다. 20년 가까이 정치·경제의 문제와 개혁방안을 연구한다. 그렇게 연구하여 쓴 작품이 조선 불후의 명작으로 꼽히는 '반계수록'이다.

그런데도 평민분을 따지며 주자학에 매몰된 정치가들은 오히려 반계수록이 현실과 관련이 없다고 평가한 것이다. 또 일부 유학자들은 '국가를 경영하는 방안은 대강만을 논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상세한 부문까지 논의하는가'라는 식의 비판적 평가를 하며 편하게 보고된다.

반계수록은 경제의 근간인 토지제도를 비롯하여 교육과 인재선발제도, 관리의 봉급제도, 영역제도 등 국정 전반에 걸친 혁신방안을 제시한다. 반계의 혁신안은 단순한 제도 혁신안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이론과 중국·고려의 제도에 관한 고찰을 거쳐 조선에 맞는 세부 시행방안까지 망라한다.

그런데도 반계수록은 정책에 반영되지 못

한다. 반계수록은 그의 사후 숙종 4년(1678년)에 처음 한 유학자의 상소로 최고정책 결정자인 왕에게 전달된다. 이에 대한 조정의 답변은 대신들이 논의한 결과 '너무 오활(迂濶)하여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오활'하다는 것은 실제와 관련이 멀다는 의미다. 하지만 반계수록은 농촌에 오래 머물며 체득한 경험과 현재와 과거의 수많은 사례를 토대로 한 정책제안이다.

그런데도 평민분을 따지며 주자학에 매몰된 정치가들은 오히려 반계수록이 현실과 관련이 없다고 평가한 것이다. 또 일부 유학자들은 '국가를 경영하는 방안은 대강만을 논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상세한 부문까지 논의하는가'라는 식의 비판적 평가를 하며 편하게 보고된다.

반계수록은 비현실적이라기보다는 집권엘리트의 이해와 다른 너무 혁신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 보고서대로 시행될 때 가져올 엄청난 정치·경제적 변화, 즉 '창조적 파괴' 과정이 두려웠을 것이다.

왕족이나 관리들에게는 차등을 두었지만, 모든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토지 1결(현재의 400평 상당)씩 나누어 주고 토지에 기반하여 조세, 병역, 기타 부과금 등을 균등하게 시행한다면 그동안 집권층이 누려온 경제적 기반과 독점권력을 잃게 된 때문이다.

반계수록은 구체적인 시행 매뉴얼까지 갖추고 있으니 그대로 시행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여러 차례 상소가 되풀이 되자 마침내

영조는 반계수록의 간행을 지시했고, 그 결과 반계의 사후 거의 100년인 1770년에 복판본이 나오게 된다.

이 혁신적인 보고서를 당시에 수용하지 못한 이유는 진짜 무엇일까? 숙종·영조때는 담쟁이가 가장 심했던 시절이다. 예컨대 '대비'의 상에 '3년상'이 읊으나 1년상이 읊으나' 등 민생과 관련없는 명분과 관념에 사로잡힌 '예송논쟁' 이후로 당파간에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었다. 목숨을 건 당쟁의 이유가 어떤 정책이 국가발전에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이 아니었던 것이다.

반계수록은 비현실적이라기보다는 집권엘리트의 이해와 다른 너무 혁신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 보고서대로 시행될 때 가져올 엄청난 정치·경제적 변화, 즉 '창조적 파괴' 과정이 두려웠을 것이다.

미국의 애쓰모글루와 로빈슨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최근 저서에서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하는 정치 엘리트들이 혁신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많은 나라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향상되는 것이 집권 엘리트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얘기다.

집권 엘리트의 이해와 다른 너무 혁신적인 것이 문제인가? 이 보고서대로 시행될 때 가져올 엄청난 정치·경제적 변화, 즉 '창조적 파괴' 과정이 두려웠을 것이다.

가 향상되면 엄격한 신분제를 토대로 한 조선의 양반사회가 붕괴될 소지가 있다. 백성들이 경제적 여유를 토대로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봉건 체제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과감한 혁신을 요구하는 반계수록을 제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살벌한 당쟁에서 승자가 권력을 독점하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시대에 자기 당파가 아닌 학자의 혁신적 주장을 수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미국의 애쓰모글루와 로빈슨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최근 저서에서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하는 정치 엘리트들이 혁신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많은 나라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향상되는 것이 집권 엘리트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얘기다.

## 社說

## '시민 구단' 광주FC, 예산 방만 운영해서야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할 시민축구단 광주FC가 각종 의혹으로 얼룩져 있다. 방만한 운영으로 창단 2년 만에 자본금이 잡식되고 선수 이적시 무자격 에이전트와 계약을 맺었는가 하면 용병 속수 구입비 과다 지출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개다가 최근에는 용병 속수 구입 과정에서 구단 직원 아파트를 공사가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 아파트 공시가는 6400만 원이었으나 구단 측은 1억 5000만 원이나 더 주고 매입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엉터리 운영에도 광주FC가 법인으로 등록돼 있어 시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도 문제다.

광주FC는 시민 3만 9000여 명의 모금으로 탄생한 시민구단이다. 그럼에도 이토록 방만하게 운영해서야 되겠는가. 광주시는 의혹을 철저히 가려 책임을 물고, 기금을 회수함은 물론 예산운영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

## 종교칼럼

## 새해에 거는 기대



하성래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교무

우리는 붉은 해가 지고 다시 떠오르는 밝은 해에 거는 기대가 참으로 크다. 숫자의 흐름으로 보면 그자 변화라고 할 수 있고, 어제 뜬 해와 오늘의 해, 그리고 내일 뜬 해가 별반 다르지 않는 그 해가 그 해이다.

하지만 분명 새해에 떠오르는 해와 한해의 시작인 '1'이라는 숫자에 매료된다. 또 다른 변화를 꿈꾸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우리 국민은 새해에 거는 기대야말로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한다.

전국 대학교수 6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30%가 2013년 새해 희망의 사자성어로 '제구포신'(除舊布新)을 선택했다고 한다.

제구포신은 춘추좌전에 나오는 말로 둑을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는 뜻이다. 옛 사람들은 낡은 것은 버리고 새것은 받아들이되 낡은 것의 가치도 다시 생각하고 새것의 폐단도 미리 보고자 했다. 이것은 둑은 것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 마음이며 진정한 제구포신의 정신이라고 한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큰 일군이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었다. 우리 국민은 새해 아침부터 대통령당선인과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과 관심이 참으로 많다. 특히 민주당의 뒷받침이다.

2013년 새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가 출범할 때는 낡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받아들이되 낡은 것의 가치도 다시 생각하고 새것의 폐단도 미리 보면서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봉사·현실정신으로 계획하고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민족들의 소박한 기대감에 상처를 주는 '나는 괜찮겠지!' '나만 아니면 돼!'

하는 개인주의나 '우리 것만 위해서!' '우리에게 감히!'라는 집단이기주의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소리를 내는 이를배반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후손들에게 물려 줄 아름다운 금수강산과 한정된 재화를 마치 개인 소유인 양, 자신들만의 축제로 특정집단과 특권층의 소유물로 오인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아귀잔치를 벌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도 밝고 투명하다.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는 너무나도 밝고 밝다. 속일 수도 없고 속인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럼 개인적으로 새해에 거는 기대는 무엇일까? 바로 인간미가 흐르고 인정이 넘치는 그런 다사로운 세상이다. 결코 국민들은 호화롭고 호사스런 그런 세상을 꿈꾸지 않는다. 단지 인간적이고, 사립다운 생활을 하길 바란다.

국민들은 최소한의 보편적인 육구를 채우기 위해 오늘도 역경과 싸우고, 가족들을 위해 철밥 위에서 농성을 하며, 생계를 위해

이력서를 들고 동분서주하는 것이리라….

원불교의 최고지도자이신 경산 장승철 종법사는 신념법문으로 '덕성(德性)을 기르고 인정(人情)을 넓히며 서로 협력(合力)하자'라고 말씀하셨다.

이제는 협력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여야(輿野)가 합력하고, 노동(都農)이 합력하고, 노사(勞使)가 합력하고, 산학(產學)이 합력하고, 이웃이 합력하고, 서로서로 양보하고, 서로로서 이해하며, 마음이 바로 선 인재를 좌우선으로 하는 대통령과 교육으로 시키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이다. 정치가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국민이 감시하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자신의 숟가락으로 자기 입에 먹을 것을 넣기 위해 밥그릇 다툼을 하는 것보다 서로서로 자신의 숟가락을 타인에게 떠먹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꿈꿔 본다.

너! 너! 우리 모두가 인간미(人間味)로 서로의 정(情)이 견네며, 한결같은 협력(合力)을 위한 노력을 부르는 그런 세상 말이다.

새해에는 일상생활에서 즐기고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다.

전남문화예술재단에서는 올해도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참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도립국악단은 매주 토요일 상설 공연을 한다. 관객 참여 공연 등을 통해 공연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악기, 무용, 국악 등을 배우고자 하는 도민들을 위해 국악강좌를 연중 운영한다.

주 5일제 수업의 본격 시행과 함께 가족과 함께하는 '토요문화학교'와 국악, 연극, 미술, 전통문화 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문화적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해 오케스트라, 연극, 춤, 요리 등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민과 문화를 공유하고 화합하는 장도 마련한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지역내에서도 얼마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가지 문화예술활동을 즐기고 참여할 수 있다. 도민들도 올해는 예향의 도민답게 지역 내에서 열리는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문화예술의 힐링효과를 직접 체험해보길 바란다.

별동대 팀이 활동중이겠는가.

하지만 그 외제차에 초호화 주택을 부인과 가족 명의로 빼돌린 채 세금을 안 내는 악덕 청탁자를 덮쳐본들 자기는 땅전 한 푼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배제라 식으로 나오면 사실상 세금을 징수할 별 뾰족한 수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청탁자들의 명단을 공개해놨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김석원·광주시 광산구 안정동

## 기고

## 힐링(healing)과 문화예술



김명원  
전남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

지, 힐링강의, 힐링여행, 전연힐링화장품 등 힐링마케팅의 유효도 거셌다.

이는 페이스북에서 분석한 2012년 우리나라 화제의 키워드 1위가 'ennifer'('ennifer')로 국민들이 각박한 시대에 사는 게 힘들다 보니 몸과 마음의 치유가 절실히 일어난 현상으로 보인다.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좋은 방법으로 문화예술이 대두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2월 26일 발표한 '2013년 문화예술분야 새로운 흐름(trend) 분석'에서 문화예술이 아픈 사회의 치유(healing)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학교폭력 및 정서적 결핍에 시달리는 청소년의 상처 치유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힐링적 가치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 속 자연학교인 '팜스쿨', '창의 예술캠프' 등과 같이 자연과 농촌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인성적 치유에 대한 관심이 출현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들의 인성과 가치관의 바탕화면 변화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많다.

1975년 베네수엘라에서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해 빈민층 아이들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시작한 '엘 시스테마'라는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난, 미약, 범죄속에서 방황하던 청소년들이 음악과 인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몸과 마음의 치유가 절실히 일어난 현상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2월 26일 발표한 '2013년 문화예술분야 새로운 흐름(trend) 분석'에서 문화예술이 아픈 사회의 치유(healing)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학교폭력 및 정서적 결핍에 시달리는 청소년의 상처 치유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힐링적 가치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대학원생 형사부, 인천보호관찰서 등에서 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결핍에 대한 심리상태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런 사례는 아파하는 학생들을 문화예술로 감싸고 미래동량으로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반증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가족과 함께 여가생활의 일환으로 문화

예술을 일상생활에서 즐기고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다.

전남문화예술재단에서는 올해도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참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도립국악단은 매주 토요일 상설 공연을 한다. 관객 참여 공연 등을 통해 공연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악기, 무용, 국악 등을 배우고자 하는 도민들을 위해 국악강좌를 연중 운영한다.

주 5일제 수업의 본격 시행과 함께 가족과

가족 명의로 빼돌린 채 세금을 안 내는 악덕 청탁자를 덮쳐본들 자기는 땅전 한 푼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배제라 식으로 나오면 사실상 세금을 징수할 별 뾰족한 수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청탁자들의 명단을 공개해놨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김석원·광주시 광산구 안정동

## 악덕 청탁자 직계 가족에 세액 50% 징수하자

납세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악덕 청탁자들로 인한 세부담을 결국, 농급 생활자 등 성실 납세자들이 떠안고 있는 요즘이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으로 세무당국이 악덕 청탁자들로부터는 부인이거나 기타 직계 가족의 재산 중에서도 세액의 50%

까지는 강제징수 하는 방안을 사용하면 어떨지는 건의해본다. 그 이유는 돈이 없다면 모를까, 이미 세금으로 내고도 납을 돈을 부인이나 자식 명의로 돌려놓은 게 뻔하기 때문이다.

재산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하는 악덕 고액 상습체납자가 많다. 그 때문에 월급쟁이들만 봄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세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벼랑에 있을까. 예를 들어 어떤 청탁자는 세금 1억 5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는 암류될 재산이 전혀 없지만 부인과 자녀 명의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2~3채를 갖고 있다면? 이런 형태의 청탁자가 도시마다 한둘일까. 오죽했으면 자치단체 세무과에는 이런 악덕 청탁자를 찾아가 잠복해서 숨어있다가 청탁자를 찾아가고자 함께 여가생활의 일환으로 문